

인간중심 상담과 여성장애인 동료상담의 적용가능성 연구

Research on Possible Application of Person-centered Counseling and Handicapped Women Peer Counseling

주은선*, 이성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Eun-Sun Joo(esjoo@duksung.ac.kr)*, Sung-Mi Lee(a_gatha@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의 장애인 동료 상담과 인간중심 상담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동료 상담 업무를 맡은 13명의 동료상담가를 대상으로 9회기의 인간중심 상담을 진행한 후, 심층 면접을 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CQR)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① 있는 그대로의 수용, ② 상담자의 변인, ③ 한계점 및 아쉬운 점으로 3개의 영역이 도출되었고, 각 영역 가운데 ①은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의 2개 범주, ②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수용하게 됨,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과 바람을 알아차리고 수용함,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한계와 잠재력을 인식함의 4개 범주, ③은 현재 삶을 돌아보는 계기, 앞으로의 삶에 대한 태도를 정함으로 2개의 범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고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인간중심 상담 |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 | 자립 생활 | 질적 연구법 | CQR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erson - centered counseling program in the field of counseling service provided by the Independent Living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rteen participants, operating peer counseling program at the Independent Living Center who finished 9 sessions of person - centered counseling program over 3 months were interview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The results were grouped into three themes as "Acceptance as oneself", "Counselor's variables", and "Limitations and unsatisfactory points". Eight categories such as "The relationship with myself and others", "Accepting oneself though with discomfort", "changed perspective about problems", "Recognizing the parts that oneself was not aware", "Accepting one's potentials as well as limitations", "Opportunity to reflect one's life", "Attitude about life ahead" were retrieved with 23 sub-categories. Based on the result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person - centered approach on peer counseling was presented. Finally, several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centered approach for peer counseling were discussed.

■ keyword : | Person-centered Counseling | Peer-counseling for Disabled | Independent Living | Peer Counseling in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

* 본 연구는 2015년 한국장애인재단(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9년 03월 13일

수정일자 : 2019년 06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6월 25일

교신저자 : 주은선, e-mail : esjoo@duksung.ac.kr

I. 서론

장애인 동료 상담은 미국의 자립 생활 지도자 에드 로버츠가 1972년 최초의 자립 생활센터를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자립 생활센터 원칙에 입각한 필수 서비스는 동료 상담, 정보 제공 및 의뢰, 자립 생활기술훈련, 권익 옹호 활동이며, 현재까지 자립 생활센터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동료상담 서비스는 1998년 일본에서 전수되어 2001년 정립 동료 상담학교에서 시작했다. 2011년 4월 자립 생활센터의 동료 상담에 대한 시행령이 신설 법제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선행연구는 제한적인 형편이다. 국내의 열악한 동료상담가 연구 상황에서 이성미의 연구는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성미는 문헌으로만 소개되었던 동료 상담의 개념을 실제 활동가의 경험을 근거로 한 개념연구로 진행했다. 이는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에서 주로 활동하는 10명의 동료상담가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이다. 이성미는 동료 상담 중에 사용되는 공감기술에 관한 개념을 분석했다[1]. 동료상담가들이 인지한 공감기술은 '내담자 중심의 상담 진행', '장애 경험의 공유', '인지의 재구조화', '정서적 수용',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5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 중에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 진행' 범주가 효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감기술에 대한 연구는 로저스(Rogers)의 인간중심 상담과 기법이 적용되었으며 인간중심 상담의 상담자의 3가지 태도 즉 진솔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은 동료 상담의 상호작용과 일치한다.

집단개별 동료 상담에서 '부정하거나 비판하지 말 것', '조언하거나 침언하지 말 것'은 동료 상담의 중요한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상담자가 자신의 삶과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에게 설부른 조언은 반감과 분노를 초래할 뿐이고 회복에도 오히려 역효과이다[2]. 동료상담가가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주고 격려해줄 때 그들의 자립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향상되고 대인관계와 장애수용이 향상한다[3][4].

장애 여성은 포괄적으로 장애인과 같은 범주에 속하지만, 연구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된 것은 장애 여성의

욕구와 어려움을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장애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단순한 장애나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5], 사회적 장애를 경험하고 사회적 욕구에 합당한 역할을 장기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을 의미한다[6].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 연구는 여성장애인들이 정체성, 주체성 확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에 주목한다.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정체성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 약자이며, 그만큼 정체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단순히 비장애인, 장애인으로 나누는 것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연구자의 태도라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남성 장애인보다 여성 장애인이 겪는 현실적 문제에 좀 더 집중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을 개별 소수자 집단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동체 정신이 결여된 사회 속에서 개개인은 서로 소외된다. 이런 소외현상으로 현시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7][8]. 본 연구에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은 여성장애인의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을 위해 인간중심 상담을 적용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인간중심 상담의 활성화와 한국적 인간중심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비 연구로 활용할 목적으로 동료 상담과 인간중심 상담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구성해갈 수 있기 위해서 인간중심 상담이 강조하는 공감과 관계, 조화의 중요성은 한국문화에 적합하며[9] 공동체 정신과 맞물린다. 인간중심 상담이 갖고 있는 전문화된 상담은 비지시적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과 인간중심 상담의 적용은 동료가 동료를 지지해주는 동료상담의 한계성을 보완해줄 수 있어 앞으로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II.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과 인간중심 상담의 접목

1. 동료 상담

1.1 동료 상담이란?

동료 상담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들까지 조력 분야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립하기 위해 1960년부터 미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훈련받은 학생이 리더가 되어 동료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장과 인간관계를 돕거나, 또는 학업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력하고 그들의 축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미국의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동료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발하게 시행 중이다[10][11]. 또한 동료상담가란 준전문가 코-카운셀러(Co-Counselor)에서 유래된 용어로 'Co'라는 것은 '협조하는 것'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실시되었던 Co-Counseling의 비슷한 처지나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 자신의 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서로 공감 공유하는 관계에서 시작되었다[4][12]. 동료 상담은 내담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 활동의 효과 면에서 볼 때 동료상담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전문적 효율성의 향상뿐 아니라 내담자 자신의 개인적 성장 효과를 얻는다고 나타났다[13]. 또한 동료 상담에 관한 여러 연구는 동료 상담이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그 효과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준다[11]. 특히 전문 상담가는 내담자의 요구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기대를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반면, 동료상담가는 내담자와 문제점들을 공유하여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서로 유사점을 발견하고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그들만의 특별한 관심사를 해결하게 하거나 문제에 대처하게 하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14].

1.2. 장애인 동료상담

장애인 동료 상담은 1972년 미국의 에드 로버츠가 버클리 장애인자립 생활센터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자립 생활센터 필수 서비스는 동료 상담, 정보 제공 및 의뢰, 자립 생활 기술훈련, 권익 옹호 활동이다. 이후 1981년 에드 로버츠가 동경에서 '국제 재활 교류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일본의 자립 생활 운동과 동료 상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국내 동료 상담 서비스도 자립 생활의 이념이 보급되

면서 시작되었다. 1998년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일본 휴먼케어 협회의 나카니시 대표가 자립 생활 세미나와 함께 동료 상담기법을 최초로 가시와기¹⁾에 의해 전수하였다. 1999년에는 한국의 자립 생활 지도자 4인²⁾을 일본에 초청하여 15일간 자립 생활 연수를 하였고, 2001년에는 자립 생활을 위한 정립회관 동료 상담 학교 기초과정을 진행하면서 동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당시 동료 상담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국내 중증장애인들의 관심 대상이었다[15]. 그리고 동료상담가는 여성장애인 당사자들 사이의 정서적 지지 내지 선배 장애인이 선 경험이나 정보를 알려주고, 일상의 만남을 통해 지원 관계로, 동료상담가가 사용하는 상담기술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16]. 이후 동료 상담이 자립 생활 실천의 핵심으로 자리하며, 최근 2011년 4월 장애인복지법의 동료 상담 시행령이 신설되고 동료 상담에 대한 모두의 합의가 포함된 통일된 이해와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에서는 장애 동료 상담 전문가를 자립 생활센터의 주요 인력으로 규정하여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에 1인 이상의 장애 동료 상담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제 40조의 2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동료 상담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립 생활 지원의 핵심인력을 동료 상담 전문가로 정하고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현재 동료 상담은 자립 생활센터의 주축이 되어 중증장애인에게 중요한 상담 활동으로 자리하였다.

동료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동료장애인 사이의 감정적 충돌 사례를 들 수 있다. 동료상담가의 지식적 태도와 언어폭력, 성급한 실천요구 등은 자립 생활에 대한 비

1 1998년 일본 휴먼케어 자립 생활협회의 나카니시(Nakanishi) 대표와 동료상담가 리더로 가시와기(Kashiwagi)가 교육을 진행했고, 현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종화는 당시 휴먼케어 센터의 전임연구원으로 참석하였다.

2 연수의 선발 기준은, 98년 자립 생활 실천 세미나에 참석했던 대상자에 한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소논문을 제출하는 등의 소정의 과정을 거쳐 4인을 선정하였다. 소논문의 주제는 '한국에 있어서의 자립 생활 실천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술'하는 것이었다. 99년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15일간 일본 휴먼케어 자립 생활협회에서 자립 생활 지도자 연수를 받은 이는, 본 연구자인 이성미와 이계수, 최유미, 박찬오이다.

현실적 방향 제시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담 진행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점들이[17] 다양한 변수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직면한 상담의 경우가 증가하면서 동료 장애인에게 적절하지 못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3. 여성장애인 동료상담

자립 생활센터에서 동료 상담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역할로서만 한정된 채 이해되어 왔고, 전문적이지 않은 동료라는 차원에서 우선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아 왔다. 동료 상담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초기에는 동료상담가들이 비공개적인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통해 문제들을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었지만, 지금의 자립 생활센터의 동료 상담 서비스는 상담 능력의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동료상담가에게 요청되는 기본적인 상담에서부터 예기치 못한 변수까지 모두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담기법의 습득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화된 상담의 필요성은 동료가 동료를 지지해주는 동료 상담의 한계성과 전문적인 상담과 동료 상담이 구분되지 않은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한계성의 극복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동료상담가는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의 역동이 어떻게 작용하며, 자신이 그러한 집단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18].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가에게 요청되는 기본적인 상담에서부터 예기치 못한 변수에 직면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 상담의 효과가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 인간중심 상담의 핵심가치들은 자립 생활의 이념과 매우 흡사하다. 자립 생활 이념의 기본철학은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본철학에 기초한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은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동료 상담 서비스의 실천적인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

동료상담가의 역할을 잊지 않으면서 단순히 상담이론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인간중심 상담의 철학과 자립 생활의 이념은 비슷한 맥락 아래서 활용 접목하여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한 동료 상담의 한계성을 인간중심 상담의 가치들과

상담기법 등이 동료 상담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용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장애인 동료상담에 전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실증적 확인 작업이 수행될 것이다.

2. 인간중심 상담

2.1. 인간중심 상담이란?

인간중심 상담은 1940년 로저스에 의해 창시된 상담이론이다. 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1930년대에 미국의 활발한 상담 활동으로 이어졌다. 당시 주된 상담은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단적이고 해석적이며 지시적이였다. 1942년 로저스의 『상담과 심리치료(Counseling and Psychotherapy)』의 출판은 기존 상담에 대한 반대입장으로 비지시적(Non-directive Counseling)이며 내담자 중심의 새로운 상담의 원리를 제시했다[10].

로저스는 내담자가 중심이 되는 상담을 추구하며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수평적 관계를 지향했고, 상담자의 지시가 아닌 내담자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심의 상담을 구축하였다. 또한 로저스는 인간중심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담 관계와 상담자의 치료적 태도를 매우 중시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화과정에 함께 있으나, 집착하거나 결정하려 애쓰지 않는 것이며, 상담자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담자가 인식하고 용기 있게 자신을 표현할 때 내담자의 치료가 가능하다[19][20]. 내담자에게 신뢰와 안전감이 제공될 때 내담자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인간중심 상담의 치료적 태도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조건은 일치성, 진정성이다. 적절한 의사소통의 표현으로 내면 경험을 지각하여 표현이 일치할 때 이를 일치성이라 한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혹은 수용이다. 수용은 내담자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으며 온전히 있는 그대로 판단 평가가 중지된 상태이다. 세 번째 조건은 공감적 이해이다. 공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로저스는 심리치료 분야에서 무엇보다도 상담가 자신을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의 하나를 공

감이라고 여겼다. 공감에 대한 연구는 로저스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특성과 요소별 치료법도 많이 나와 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심리치료 방법은 250여 가지에 이른다. 오늘날 공감의 치유적 개입은 기본 조건처럼 받아들여져 있다. 이러한 공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담자 상담이론은 핵심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감은 중요한 이론적 위치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도 로저스의 공감 개념은 심리치료에서는 결정적이다[21-23].

2.2 인간중심 동료 상담

여성장애인 동료 상담과 인간중심³⁾ 동료 상담의 기본 원칙은 거의 비슷하다. 인간중심적 동료 상담은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므로 적극적 경청해야 한다. 경청 중에는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듣고, 동시에 동료상담가는 문제 해결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료상담가가 문제 해결 기술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인간중심 상담적 동료 상담에서 동료는 성별, 인종, 나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면 누구나 서로 지지해주는 동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친구가 동료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끼리,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끼리,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누구나 동료 상담을 할 수 있다.

인간중심적 동료 상담에는 일정의 원칙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장애인을 가진 동료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가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는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담자 본인이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인지하고 있어야 내담자인 동료 장애인의 장애에 따른 경험도 객관적으로 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동료상담가의 역할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태도이다. 동료상담가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동료상담가는 “너 이거 해야 해”라는 등의 고압적 태도를 취할 수 없다. 또한 내담자가 조언을 원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적인 조언을 할 수 없다. 동료상담가는 내담자를 경청을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조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료상담가는 자신의 선 경험을 공유하거나 주변 자원의 연결 등의 방식으로 내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동료 상담의 규칙은(Peer Counseling Training Ground Rules) 판단, 비판, 평가하지 않는다. 자신이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 외부이야기를 가급적 하지 않으며, 동료 상담을 하는 동안은 자기감정에 충실해야 한다.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에서 실천되고 있는 동료 상담에 인간중심 상담의 상담 프로그램이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에게 미치는 상호작용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집단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가 대상이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국내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CIL:Center for Independent Living)의 소장, 국장, 팀장, 동료상담가로 활동 중이다. 자립 생활센터에서는 동료 상담을 필수 사업으로 규정한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NO.	성별	연령	장애유형(등급)	동료상담경력	현재소속
1	여	47	지체장애2급	7년	동료상담가
2	여	48	지체신장(1급)	14년	소장, 동료상담가
3	여	47	지체장애1급	1년	동료상담가
4	여	37	지체장애1급	1년	동료상담가
5	여	43	지체장애1급	6년	국장, 동료상담가
6	여	35	지체장애2급	3년	동료상담가

3 출처: 샌프란시스코 피어 카운슬링 트레이닝 메뉴얼의 일부

7	여	46	지체장애1급	2년	동료상담가
8	여	51	지체장애3급	1년	동료상담가
9	여	43	지체척수(1급)	10년	소장, 동료상담가
10	여	54	지체장애2급	8년	동료상담가
11	여	42	지체장애1급	5년	동료상담가
12	여	34	지체장애1급	9년	팀장, 동료상담가
13	여	43	지체장애1급	10년	팀장, 동료상담가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자립 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13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에서 7월까지 총 9회기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3달에 걸쳐 9회기의 인간중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인터뷰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합의적 질적 연구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9회기의 교육을 마친 후 참여자들에게 동료 상담과 인간중심 상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심층적인 체험을 파악하고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 자료수집 방법

인터뷰 대상자 선정은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연구목적에 관해 설명하였고, 이 중 참여 의사를 밝힌 13명의 연구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시각에서 나오는 질적 연구의 특성에 따라, 인간중심 상담 교육을 받은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들이 상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체험하고, 전망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수집했다.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활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동시에 비구조화된 반 구조 인터뷰를 방법을 선택하여 구체적 인터뷰에 적용했다. 면접 과정에서 동료상담가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이 체험한 바를 심도 있게 진술했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 사전 동의로 녹취를 하였다.

Krueger & Casey가 제시한 도입 질문(Opening questions), 전환 질문(Transition questions), 주요

질문(Key questions), 마무리 질문(Ending questions)순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였다[24].

표 2. 인터뷰 질문 목록

구분	질문 내용
도입 질문	1. 인간중심 집단상담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동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2. 인간중심 상담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전환 질문	3. 인간중심 상담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4. 다른 집단상담 경험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르다고 느꼈나요?
주요 질문	5. 인간중심 상담을 통해 전반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6. 인간중심 상담을 통해 새롭게 익히게 된 기술, 기법은 무엇인가요?
	7. 무조건적 긍정적 태도, 공감, 일치성을 경험하셨나요?
	8. 어느 부분이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마무리 질문	9. 인간중심 상담을 통해 여성장애인 동료 상담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10.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2) 인터뷰 진행 과정

연구 참여자 13명에게 교육 후 인터뷰 동의를 구하였고,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과 일정에 대한 사전 연락을 취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3개월 동안 교육이 진행됐던 교육장에서 진행했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일정을 최대한 배려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인터뷰 자료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밝히고, 연구참여자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분류했다. 녹취로 이루어진 자료에 대해 전사(Transcription) 작업을 통해 축어록을 만들어 질적 분석을 준비했다.

3. 자료의 분석

본고는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들이 교육을 받고 난 후, 동료 상담과 인간중심 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심층적이며 체험적 경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내용 추출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묘사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내적 경험을 연구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온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

4 2015년 한국장애인재단(<https://apply.herbnum.org>)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인간중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을 채택하였다[25]. 인터뷰를 통해 나온 전사된 축어록을 기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추론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공동 연구자(감수자)

내용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연구자를 포함 3명의 평정자와 1명의 감수자가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평정자는 모두 상담심리 전공 석사과정생으로 CQR 분석에 참여하며 교육을 받았다. 감수자는 현재 상담심리학 교수이며, 20년 이상의 상담경력과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 연구 전 과정에 연구팀에 대한 지도 및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 주었다.

2) 자료 분석 절차

먼저 자료의 준비를 위해 참여자들의 녹취를 비언어적인 내용까지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영역의 부호화를 만들기 위해 유사한 주제들을 분류 평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3명의 평정자가 개별적으로 분류한 영역을 합의 과정들을 통해 감수자의 피드백을 거쳐 최종으로 영역을 정리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최소화되어 정리된 최종 핵심 개념 문단 8개의 영역을 결정하여 명료화하였다.

3) 교차 분석 및 교차분석의 감사 과정

교차 분석은 평정자들이 유사한 핵심 개념들을 묶어 범주화하고, 범주 명을 결정하였다. 평정자들은 각자 사례에 대해 독립적으로 범주화를 실시한 후 함께 합의 과정을 거쳤다. 범주화를 한 후에는 최종적인 이름을 붙이고 결정된 범주가 사례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표시했다. 이후 교차 분석 자료에 대해 감수자의 피드백을 받고 감사받았다.

IV. 연구결과

합의된 감사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의 중심개념을 묶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한 8개의 영역을 추출하였다. 각 영역마다 11~12 사례 모두에 해당하는 범

주는 '일반적', 6~10 사례 해당하는 범주는 '전형적', 2~5 사례 이하의 범주는 '변동적'으로 표시하였다[23]. 인간중심 상담 교육 후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의 심층 체험에 대한 결과는 '있는 그대로의 수용', '상담자의 변인', '한계점 및 아쉬운 점'으로 분류했다. 각 중심개념에서 동료 상담에서의 활용 방안이 도출됐다. '있는 그대로의 수용'에서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보게 됨으로써 자신의 문제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 '상담자의 변인'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수용하게 됨이 보고되었다. '한계점 및 아쉬운 점'에서는 현재 삶을 돌아보는 계기, 즉 앞으로 삶에 대한 태도를 정함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 이는 [표 3]에 정리해두었다.

표 3. 교차분석 결과

중심 개념	영역	범주	응답빈도
있는 그대로의 수용	자신과의 관계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자신을 알아차림	일반적(4)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해 짐	일반적(4)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	전형적(6)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전한 거리가 필요함을 알게 됨	일반적(4)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율이 필요함을 알게 됨	일반적(5)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알게 됨	변동적(4)
	말하지 않아도 그림 작업을 통해 표현되며, 그것을 타인이 알아봐 줌	일반적(6)	
상담자의 변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수용하게 됨	바라보기 힘든 문제를 바라보게 됨	일반적(5)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불편함을 감수함	변동적(2)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	문제를 세분화하여 바라보면서 문제를 확대하지 않게 됨	일반적(10)
		문제를 외면하면 오히려 해결되지 않음을 알게 됨	변동적(6)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과 바람을 알아차리고 수용함	언어, 비언어적 반응을 인식함	일반적(3)
		힘들어하는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 줌	일반적(4)
		자신에 대해 새롭고 수용적인 인식을 하게 됨	변동적(2)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됨	일반적(4)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한계와 잠재력을 인식함	자신의 한계와 책임의 경계를 수용	일반적(6)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느낌	변동적(4)
한계점 및 아쉬운 점	현재 삶을 돌아보는 계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됨	일반적(4)
		소진된 삶을 재충전 함	일반적(3)
	앞으로의 삶에 대한 태도를 정함	현재 자신의 삶에 감사하게 됨	변동적(2)
		앞으로의 삶에 주변정리를 적용시키고자 함	일반적(6)
	미래에 대한 삶의 태도와 방향을 정함	변동적(4)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됨	일반적(7)	

중심개념 1. 있는 그대로의 수용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소속된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면을 쓰고자 하는 것, 즉 마음속으로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상담가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거나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들은 신체적 장애의 한계가 다른 사람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교육을 참가하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스스로 조명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러링 기법'의 적용이다. 촉진자의 태도를 보고 스스로 내담자에게 반영되었다.

영역 1. 자신과의 관계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들은 있는 그대로 수용 가능성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경험에서 찾았다. 인간중심 상담에 있어 있는 그대로의 존중과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보고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자신을 알아차림
- ②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해 짐
- ③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

“나부터 변화를 조금 해야 되겠다”. <참여자 1>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가정에서나,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또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새로 태어난 기분이 좀 들었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처음과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선입전에서(생각의 전환) 신기함과 뚜렷함 같은 거요” <참여자 2>

“선입견이 있었는데, 참여하면서 신기하게 변화되는 것 같고 답답함이 해소되었어요”. <참여자 10>

영역 2. 타인과의 관계

영역1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인지하게 된 것은 관계의 성장을 위해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할 자기수용의 과정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다음 과정이 타인에

대한 이해이다. 내담자는 상담자의 수용으로부터 받은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자기수용(self-acceptance)의 느낌이 들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인간중심 상담에서 제시하는 상담자의 3가지 태도, 진솔성,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공감을 경험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의 중요함과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였고, 자기 변화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26].

- ①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전한 거리가 필요함을 알게 됨
- ②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율이 필요함을 알게 됨
- ③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알게 됨
- ④ 말하지 않아도 그림 작업을 통해 표현되며, 그것을 타인이 알아봐 줌

“우리 집에서나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저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새로 태어난 기분. 새로운 면들이 보이고. 너무 좋았어요.” <참여자 4>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 맘이 열렸고, 긴장감이 열린 마음으로 전환됨이 시작되면서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 11>

중심개념 2. 상담자의 변인

로저스는 상담자의 상대방에 대한 촉진적 태도를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내담자와 라포 형성이 가능하게 된다면 상담 관계 자체가 내담자의 성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27].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언어, 비언어적 알아차림’이다. 상담자가 촉진적 태도로 내담자를 수용한다면, 내담자는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는 감정을 경험하고 자신의 경험에 개방적일 수 있다. 즉 내담자가 촉진자를 보고 관심사를 탐색하며 자기 돌봄이 치료적 관계로 이어진다[28]. 진솔한 관계 형성으로부터 얻어지는 따듯하고 수용적인 감정의 경험은 이후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상담자가 내면의 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은 인간중심 상담의 치료적 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지점이다.

영역 1.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수용하게 됨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기수용 과정을 통해 참여자는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를 체험하고,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과 바람을 알아차리고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로저스가 상담자로서의 촉진하는 치료적 성격 변화를 위한 충분조건으로 제시한 세 가지, 즉 일치성,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공감은 교육 참여자들에게 제공되었다. 교육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과거에 억압되었던 체험을 이해하게 되고, 나로 더욱 통합되어 자신을 수용할 수 있었다. 상담자의 자기감정에 대한 탐색은 내담자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로 이어졌다[26][28].

- ① 바라보기 힘든 문제를 바라보게 됨
- ②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불편함을 감수함

“다시 상기하면서 촉진자와 그런 게 강렬했어요. 카리스마 있는 게 느껴지고. 강사에 대한 진정성, 강사에 대한 일치성을 느꼈어요.” <참여자 13>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엄마에 대한 부분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에 대한 복잡 미묘한 생각이 엄마의 입장에서 그제 최선이었던 거다. 저 또한 엄마의 입장에서 가끔 너무 힘들 때 엄마를 공감하게 되고.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 같은 엄마하고 더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5>

“저도 독립하기 전에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집에 손님이 오시면 숨어있어야 했어요. 교육 시간에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뜬금없이 나면서 어머니의 상황도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꼬집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참여자 4>

영역 2.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

조사가 진행되면서 참여자들의 집단 상담과 개인적인 생활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주요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내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탈피하려 했던 경험이 치료로 이어지게 된 것은 훈련된 인간중심 상담자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29]. 이는 인간중심 상담에서 제시하는 상담자의 태도

와도 연결된다.

- ① 문제를 세분화하여 바라보면서 문제를 확대하지 않게 됨
- ② 문제를 외면하면 오히려 해결되지 않음을 알게 됨

“다른 교육의 경우 포커스를 장애나 장애인에 맞추는 강사 분들이 많은데 이 교육에서는 촉진자가 포커스를 인간,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3달에 걸친 교육에서 장애인이란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2>

“제3의 눈같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촉진자가 촉진을 해주었을 때 단기간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신기했고 마력에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 7>

“제 문제와 상황을 단기간에 볼 수 있었던 것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9>

영역 3.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과 바람을 알아차리고 수용함

언어, 비언어적 알아차림을 보고하였다.

- ① 언어, 비언어적 반응을 인식함
- ② 힘들어하는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 줌
- ③ 자신에 대해 새롭게 수용적인 인식을 하게 됨
- ④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됨

“제 얘기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옆에서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맘에 와 닿았어요. 촉진자가 제 상황을 듣고 몇 마디 안 했는데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 12>

“처음에는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가지? 했는데 자꾸 가다 보니까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여자 5>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느꼈기 때문에 강의를 재밌고 시원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9>

“촉진자가 말씀하신 내 안의 나랑 잘 지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제일 와 닿았어요. 내 문제가 뭐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딸하고 같이 사는

5 인간중심 상담에서 상담자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촉진자라고 표시하였다.

데, 스트레스를 저 혼자 많이 받았어요. 그게 내려지더라고요.” <참여자 2>

영역 4.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한계와 잠재력을 인식함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를 수용하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변화를 체험하고 더욱 확장된 자신의 한계 수용 잠재력을 발견했다. 참여자들은 현재의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하게 됨으로써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 이는 상담가의 변인으로 인한 효과이다.

- ① 자신의 한계와 책임의 경계를 수용
- ②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느낌

“저희 체험회에 지적장애를 가진 분의 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언니가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교육을 듣고 난 후 돌아가신 언니가 보이는 것을 인정해 주니까 인정받는 것을 느껴 관계에 도움이 되었어요.” <참여자 8>

중심개념 3. 한계점 및 아쉬운 점

인간중심 상담은 임상 적용이 가능한 연구 영역이다. 장애인 동료 상담은 자립 생활의 이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가 배제의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장에 자립 센터 동료 상담 위원회에서는 동료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결중심상담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임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인간중심 상담이 현장에 적용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영역 1. 현재 삶을 돌아보는 계기

참여자들은 인간중심 상담의 철학과 비지시적인 상담기법을 접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나갈 수 있었다.

- ①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됨
- ② 소진된 삶을 재충전함
- ③ 현재 자신의 삶에 감사하게 됨

“자립 생활 교육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뭔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인간중심 상담은 관심이 가고 빠져들게 됐어요.” <참여자 12>

“인간중심 상담교육을 들으면서 관심이 생겼는데 좀 더 길게 장기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쉬움이 남네요.” <참여자 1>

“기회가 되어 실습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포커싱도 맛만 보고 지나가서 아쉽고 더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9>

“공감하는 능력이라든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많은 도움이 되어서 공부하려고 책도 읽고 있어요. 내담자 지적장애인이 계시는데 공감의 방법을 적용하니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현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영역 2. 앞으로의 삶에 대한 태도를 정함

참여자들의 교육 기간에 대한 아쉬움은 인간중심 상담의 치료 효과를 드러내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실습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했는데, 막연히 이론적으로 인간중심 상담을 강조하기보다는 직접 체험을 통해 치료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접 체험을 경험한 이후에 참여자들은 더욱 인간중심 상담을 신뢰하게 되었다[30].

- ① 앞으로의 삶에 주변 정리를 적용시키고자 함
- ② 미래에 대한 삶의 태도와 방향을 정함
- ③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됨

“상담가가 되기 위한 자기 성찰과 전환이 되었어요. 인간중심 상담을 심도 있게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체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료상담가 들에게 이런 기회가 너무 없어요.” <참여자 3>

“제가 이번 교육에 참여했다고 인간중심 상담을 안다고 할 수 없겠죠. 상담을 하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학 되면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참여자 2>

“교육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주제는 너무 큰데

5주 만에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부단히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간중심 집단상담 참여자들의 심리적 관계적 측면에서의 경험 내용과, 변화 내용을 질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고, 이를 위해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인간중심 집단상담 참여자들이 인간중심 집단상담을 통해서 여성장애인 동료 상담과 그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동료 상담은 자립 생활운동을 통하여 장애인 동료 상담의 상담기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동료 상담은 장애인 스스로의 극복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31]. 더불어 중요한 것은 동료상담가 스스로의 의지가 성장될 수 있도록 조금의 없이 기다려주는 것이다[1].

이는 인간중심 상담의 진솔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 원칙과 일치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개념, 기본적인 태도, 자기 주도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대한 자원을 자신 안에 갖고 있으며, 어떤 토양에 제공되지만 한다면 그 자원을 일깨울 수 있다.”[32] 이 점은 인간중심 상담과 동료 상담 상담가가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과정과 일치한다.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들이 인지한 공감 기술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내담자 중심의 상담 진행’범주에서 내담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 존중하며 칭찬하기와, ‘인지의 재구조화’ 범주에서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게 하기, 충고나 조언이 아닌 적절한 개입을 하기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것은 인간중심 상담에서 공감과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추구하는 바가 자립 생활의 이념, 즉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과 동일함을 보여준다.

인간중심 상담은 단순히 의료 지향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담자 중심의 장애의 사회모델과 인간중심 상담 접근의 가치는 동료상담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실제로 그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31].

두 번째 연구문제로 동료상담의 효과적인 훈련방법, 교육과정과 매뉴얼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내는 여전히 일본의 구조화된 동료 상담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며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역시 동료상담가의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나 교육과정에서의 매뉴얼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동료 상담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이런 통일되지 않은 개별적 교육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동료 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해서 요청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동료 상담에 대한 동료장애인들의 개인적인 흥미와 관심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1]. 본 연구 결과는 인간중심 상담과 동료 상담이 지속할 수 있는 양질의 체계적 교육과정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 자립 생활 측면에서도 동료 상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전히 전문가의 개입이 과제로 남아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동료 상담에 관한 시행령 이후 ‘장애 동료 상담 전문가’가 명시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중심 상담은 동료상담가 양성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고, 그 준거 틀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론(CQR)을 적용한 장애인 관련 기존 국내논문과 인간중심 상담 관련 논문을 살펴볼까 한다.

기존 연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은 이현심이 쓴 장애인의 일상생활 경험에서 어려움을 알아보기와 한 논문을 들 수 있다. 연구 결과는 3개의 범주, 14개의 영역 및 그에 따른 48개의 내용에 따라 빈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은 결혼, 노후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신감 결여 등

으로 나타났고 이를 대처하는 과정으로 종교, 지역사회 체계이용,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이용하였다[34]. 또한, 라영안, 김원호의 연구는 취업 시 혹은 직장에서 장애를 개방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장애 개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한 논문이다.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으로 장애 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피고용인 영역과 직무 환경 영역으로 나누어졌으며, 장애 개방 의지, 장애의 특성, 회사에서의 위치, 고용주, 동료, 회사의 형태 및 조직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찾을 수 있었다[35].

아울러, 문은희의 '장애 청소년 양육자의 양육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는 장애 청소년을 둔 양육자 14명을 대상으로, 장애 자녀 양육자의 양육 경험을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다루었다[36].

청각장애인을 위한 구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합의적 질적 연구로 이준우의 논문에서 변화된 점은 대인관계가 꼭 소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라는 보편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 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내 잘못이 아닌 의사소통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임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37].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의 성인 비장애 형제 자매가 인식한 장애수용 경험에 관한 민소영의 논문은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어렸을 때부터 형제의 장애를 자연스럽게 수용하지만, 가족 안에서, 심리적, 환경적인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점차 장애 형제와의 경험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깨닫고 성인이 되면서 성숙과 변화를 경험하며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현실적으로 고민하였다[38].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인간중심 상담 선행 논문은 다음과 같다. 윤혜성과 주은선은 인간중심 상담 수련자들의 경험에 대해보고 한 바 있다[30]. 인간중심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수련자들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중심 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민정은 인간중심 집단상담에 참여한 집단원의 경험에 대해서 일차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인간중심 상담의 경험을 연구하였다[20].

김은주는 인간중심 상담과 한국 사회-문화와의 상충 점과 적용 및 과제를 인간중심 상담을 사용하는 전문상

담자의 인간중심 상담을 유용하게 적용하여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돕는데 보고를 중심으로 연구했다[19].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합의적 질적 연구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상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동료 상담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유사연구로 인간중심 상담을 합의적 질적 연구법을 통한 선행 연구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연구대상자가 장애인 동료상담가라는 것과 인간중심 상담과 동료 상담을 접목하여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첫 연구 자료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연구 방법상 최소한의 연구자 개입이 요구된다. 동료상담가의 경험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 연구의 방법론은 국내 장애인 동료 상담의 한계성으로 지적되어 온 전문가의 개입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또한 한국적 인간중심 상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의 시작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장애인 동료 상담 영역 안에서 인간중심 상담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첫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동료 상담과 인간중심 상담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존의 이론적 고찰연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본 연구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간중심 상담의 체계적 구성요소를 밝히는 실증적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둔다는 점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 [1] 이성미, *장애인 동료 상담의 공감기술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0, 2013.
- [2] 주은선, 조영민, 김단비, 강유진, "우울증 경험과 회복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7, p.521, 2017.
- [3] 임기현, *중증장애인의 동료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0-60, 2003.
- [4] 김순영, *여성장애인의 동료상담 교육이 자립 생활 의*

- 식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0-85, 2011.
- [5] 민병윤, *여성장애인의 노후준비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지체 및 뇌병변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strategy:with special reference to disabled women due to cerebrovascular accident*,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2-23, 2009.
- [6] 차선자, “장애 여성의 차별과 인권보호-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민사법연구, 제13권, 제2호, pp.133-166, 2005.
- [7] 추병완, *도덕 발달과 도덕 교육*, 서울:하우, pp.328-329, 2008.
- [8] 김도현,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 진보평론, 제52호, pp.172-190, pp.175-176, 2012.
- [9] 주은선, “인간중심 상담의 교육 및 수련프로그램에 관한 국제적 동향,” 人間理解, 제32권, 제2호, pp.1-22, p.1, 2011.
- [10] 설기문, “학생발달을 위한 카운슬러의 인력훈련에 관한 일 고찰,”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3권, pp.39-66, 1988.
- [11] 이형득, 김정희, “Peer Group Counseling의 효과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8권, pp.41-63, 1983.
- [12] Asaka yuho, Nogami Haruko & Murayama Miwa, “IL 실천을 위한 장애인 제공자의 역할과 기능-피어카운셀링의 기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자립 생활 실천을 위한 과제와 전망,”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pp.77-79, 2001.
- [13] 김광은, *동료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 연구:사관생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7-11, 1992.
- [14] 강진구, “동료 집단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5권, 제1호, pp.183-208, 1997.
- [15] 윤재영, 박찬오, 박정현, “장애인 동료상담가 역할의 범주화=Role Categorization of Peer Couns-elsors in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재활복지, 제17권, 제2호, pp.1-3, 2013.
- [16] 류청한, *장애인 동료상담 구성요소와 상호작용 연구 : 개념도 연구와 상호작용 질적분석의 통합적 적용*,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5-26, 2018.
- [17] 이원교, 박현, “7차 회의 자료,” 한국장애인자립 생활 센터협의회 동료상담위원회, 2008.
- [18] 강순화, *집단 상담에서의 언어반응 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0-30, 1994.
- [19] 김은주, *인간중심 상담과 한국 사회-문화와의 상충점과 적용 및 과제연구 인간중심 상담을 사용하는 전문상담자의 보고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0-16, 2017.
- [20] 박민정, *인간중심 집단상담에 참여한 집단원의 경험에 관한 연구 : 일치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경험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12, 2014.
- [21] 김계현, “상담전공 대학원생수 조사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6권, 제1호, pp.142-165, 1994.
- [22] 윤순임, “공감(empathy)의 정신분석적 이해,” 원광 아동상담센터 회보, pp.1-4, 1996.
- [23] 박성희, *공감학 어제의 오늘*, 학지사, p.18, 2004.
- [24] R. A. Krueger and M. A. Casey, *Focus Groups(3rd edition)*, Thousand Oaks, CA, London and New Delhi: Sage Publications Ltd, 2000.
- [25] C. E. Hill, 주은선 옮김, *합의적 질적 연구*, 서울:학지사, p.86, 2016.
- [26] Dave Mearns & Brian Thorne, 주은선 옮김, *인간중심 상담의 임상적 적용*, 서울:학지사, pp.8-47, 2012.
- [27] C. R. Rogers, *Client-centered therapy: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s, and theory*, Boston: Houghton Mifflin, p.267, 1951.
- [28] C. E. Hill and K. M. O' Brien, 주은선 옮김, *상담의 기술*, 학지사, pp.113-117, p.199, 2012.
- [29] Hutch Haney & Jacqueline Leibsohn, 주은선 옮김, *집단상담의 15가지 기술*, 시그마프레스, p.84, 2011.
- [30] 윤혜성, 주은선, “인간-중심 상담 수련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인간-중심 수련자들의 자기보고 중심으로-, 人間理解, 제31권, 제2호, pp.141-166 2010.
- [31] 정종화, “장애인 자립 생활의 이론과 실제,”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p.2, 2004.
- [32] Carl R. Rogers, 주은선 옮김, *칼 로저스 상담의 원리와 실제-진정한 사람되기*, 학지사, p.30, 2009.
- [33] Rogers, *A way of Being*, Houghton Mifflin company:Boston, 1980.

- [34] 이현심,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에 관한 합의적 질적(CQR)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2호, pp.561-570, 2014.
- [35] 라영안, 김원호, “장애인 고용 환경에서 장애개방을 이끄는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장애와 고용, 제25권, 제4호, pp.185-205, 2015.
- [36] 문은희, *장애청소년 양육자의 양육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 2015.
- [37] 김경애, *청각장애인을 위한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7, 2017.
- [38] 민소영, *중증장애인의 성인 비장애 형제자매가 인식한 장애수용 경험*,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72-77, 2019.

저 자 소 개

주 은 선(Eun-Sun Joo)

정회원



- 1997년 : 미 Chicago대(박사)
- 1993년 : 미 Chicago대(석사)
- 1998년 ~ 현재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상담과 문화, 상담자 발달, 인간중심과 포커싱

이 성 미(Sung-Mi Lee)

정회원



- 2008년 2월 : 광운대학교 동북아 통상학부(학사)
- 2013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4년 2월 ~ 현재 : 강남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관심분야〉 : 인간중심상담과 포커싱, 자립생활,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